

기업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 시 은 (selee@kdb.co.kr)

- ◆ 1~11월중 기업대출 증감액은 92.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의 1.9배 수준
- ◆ '21년 들어 기업의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시 기업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우려
 -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로 자금공급이 축소될 수 있으나 경제회복 지속을 위한 은행들의 금융중개 기능이 중요하기에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필요

□ '21.1~11월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은 9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전 3개년(1~11월) 평균의 1.9배 수준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등 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기인
 - 기업의 설비투자 BSI 실적치*는 코로나19 발생후 '20.4~5월 80까지 급락했으나, '21.11월에는 97로 반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회복
 - * 설비투자 BSI = '계획대비 수정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이 기업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

	'17~'19년 평균		'20년		'21.1~11월	증감률	평년대비
	1~11월	1~11월	1~11월	1~11월			
기업대출	41.9	48.7	107.4	113.0	92.1	△18.5	1.9배
대기업	△0.2	2.9	19.5	24.5	9.2	△62.2	3.1배
중소기업	42.2	45.7	87.9	88.5	82.8	△6.4	1.8배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평년대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년('17~'19년)의 1~11월 증감액 평균대비 배수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 '20년중 취약기업 수 증가로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21년 들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여 영업활동으로 이자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 수 비중은 '20년 35.2%로 '15~'19년 평균(31.0%)을 크게 상회*
 - * 연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외부감사기업('20년 22,688개사)을 대상으로 분석(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21.9월)

- 취약상태가 3년 이상인 한계기업 수 비중은 15.3%로 숙박음식(43.1%), 조선(23.6%), 운수(22.6%) 업종에서 높게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적이 부진했던 국내기업들이 '21년 들어 성장과 수익 호조세가 지속되고 부채비율도 하락하는 등 재무 안정성이 개선
 - 이는 수출 호조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

외감기업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 %)

	'19년			'20년				'21년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매출액 증감률	△1.1	△2.8	△0.5	△1.9	△10.1	△3.2	△1.0	7.4	18.7	15.4
대기업	△1.2	△3.3	△1.0	△1.9	△11.3	△3.6	△1.3	7.1	20.0	16.7
중소기업	△0.6	△0.4	1.9	△1.8	△4.9	△1.3	0.1	8.5	14.1	11.4
매출액 영업이익률	5.5	4.8	2.6	4.1	5.3	6.4	3.3	6.4	7.4	7.5
대기업	5.2	4.4	3.4	3.5	5.1	6.7	4.0	6.5	7.7	8.3
중소기업	6.8	6.4	△1.0	7.0	6.1	5.5	0.5	6.0	6.4	5.0
부채비율	83.5	83.5	84.3	88.0	87.0	86.8	85.8	89.4	85.4	84.5
대기업	78.7	79.4	79.9	83.5	82.3	82.5	80.7	84.6	79.8	79.1
중소기업	108.7	104.1	106.7	112.3	110.2	107.7	112.1	114.2	107.7	105.2

주 : 1) 표본조사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20,120개) 모집단 추계 결과
 2) 매출액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x 10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반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나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들의 연착륙 지원은 필요

- 향후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개선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우려
 - 이와 함께 금융권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존재
- 실물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지속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이 중요한 만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종료 및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은 자금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어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들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
 -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종료 등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4조원 공급